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마음씨가 온화하면서도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이는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8호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기업명상 확산, 불교발전 '디딤돌' 될까

삼성 등 명상산업 전개에 불교계 관심 목소리 높아

2013년부터 본격화된 기업 명상연수가 이제 명산산업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불교 명상 현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명상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중인 영덕연수원은 공정률 20% 속에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영덕연수원은 21만 삼성전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상교육 등이 진행되는 명상힐링센터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내 라이프코칭센터를 두고 심리상담을 진행해 왔다. 2013년에는 미래전략실 주도로 명상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삼성전자 연수원의 롤 모델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이다. 대웅제약이 대주주로 투자한 힐리언스 선마을은 이시형 박사가 2009년 설립한 자연치유센터로 10개의 트레킹 코스와 친환경 시설 등을 활용한 명상 · 힐링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곳은 2011년 문광부 치유여행지, 2014년 민간1호 치유숲에 선정된 바 있다.

동화그룹도 경기도 남양주에 '동화컬처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2월 건립된 동화컬처빌리지는 지난해부터 명상호흡과 집단상담 등을 진행하는 '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국산업도 최근 비영리재단인 재단법인 중도를 출범시켜 경주에 황룡원을 개원했다. 황룡사 9층목탑을 재현한 황룡원은 기업체를 위한 CEO명상코스 등이 운영된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명상분야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체 초청강연에 나서고 있는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 소장은 "경쟁격화로 인한 직원 휴식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미래문화콘텐츠 발굴 차원에서도 명상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감지된다"며 "2003년 타임지 표지에 '마음챙김과학'이 2013년에는 '마음혁명'으로 보도됐다. 해외에서는 명상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명상산업 투자, 불교계 영향은?

기업들이 명상마을, 명상센터 등을 직접 지어 운영하는 명상산업 시대에 불교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불교계는 2008년 12월 한국문화연수원을 개원해 기업연수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사찰에서도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문화연수원 박희승 교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명상경영의 효과를 맛본 기업들이 이제 직접 센터와 마을, 관련 연수원을 짓고 운영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격차가 상당하다. 전통사찰이 가진 한계 등 인프라 문제를 불교계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하지만 기업들의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심신치유 등 명상의 효과에 국한돼있다. 부수적인 것에

삼성, 영덕에 명상연수원 건립
동화 · 대웅 · 동국 등도 투자
직원 휴식+미래산업 개발 진행

불교계 인프라는 상대적 열악
전문가 "입문자 증가는 기회"
지도자교육 등 심화 보급 주문

치중하다보면 본래 불교에서 나온 마음공부에 대한 목적이 전도될 수 있다"며 "기업 명상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불교체험 등을 통해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인 김재성 능인불교대학교수는 "이미 불교계는 위빠사나의 국내 도입으로 간화선이 한층 더 발전한 것을 경험했다"며 "또 하나의 저변확대로 볼 수 있다. 입문자들이 늘면 명상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심화된 명상을 추구하는 이들도 증가할 것이다. 불교계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저변확대에 맞춰 2015년 4월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구성하고 지도자 교육과 양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스님은 "지도자 양성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진 만큼 한국불교계가 가진 명상전통을 살려, 현대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 전에 올릴 꽃, 참 곱구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7월 21일 칠석과 백중 등을 앞두고 사찰 꽃 공양 및 장식 꽃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양재동 aT센터 로비에서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이 전시된 꽃을 유심히 보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회 천태어린이 찬불동요 합창제

본선 9월 24일 개최… 8월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천진불들에게 동요를 통해 맑은 심성을 심어주는 한편 찬불동요 보급과 불교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찬불동요 합창제를 마련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9월 24일 오후 1시 금강대 대강당서 '제2회 천태어린이 찬불동요 합창제'를 개최한다.

만 4세 이상~만 16세 이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참가 부문은 △유치부 독창 · 중창 · 합창 △저학년 독창 △고학년 독창 △저 · 고학년 중창 △저 · 고학년 합창 등이다. 대상에는 상금 200만원, 합창 · 중창 · 독창 최우수상에는 상금 각 50만원, 합창 · 중창 우수상에는 상금 각 30만원, 독창 우수상에는 상금 20만원, 합창 · 중창 장려상에는 상금 각 10만원, 독창 장려상에는 상금 5만원이 주어진다.

합창제 접수는 8월 31일까지 천태종 홈페이지(http://www.cheontae.org)서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pko2013@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본선 진출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며, 본선 진출시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으로 중 · 합창에 10명 이상일 경우 10만원으로 일괄 산정된다. 참가문의 (043)420-7267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RUSH'

원주시- 폐사지 · 충남- 서산 백제 불교권 잇달아

원주 흥법 · 거돈 · 법천사지 3곳
보편 가치 알릴 심포지엄 개최
국내 잠정목록 등재 우선 추진
"지역 문화 진흥 · 홍보에 도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재 ·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원주시는 흥법사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폐사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고, 충남도는 서산 불교문화 유적들을 추가 등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원주시다. 원주시는 지난해 흥법사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3곳 폐사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하고 올해부터는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폐사지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 첫 심포지엄이 열렸고, 7월 15일에 2번째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인재 연세대 교수는 '원주 세 폐사지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발제를 통해 원주의 폐사지가 세계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그 가치를 세 폐사지에서 활동한 충담 · 지종 · 해린 스님에게서 찾고, 이들이 남긴 △개경 역사지구 △해인사장경판전 △팔만대장경 등 고려시대 유산과 깊은 문화적 연대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원주 세 폐사지의 인물과 그들의 업적은 한국 문헌에 잘 증명되지 않았던 고려인의 주체적 세계관, 평화인문정신의 원천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백제 불교유적을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7일 서산문화원에서 의정토론회를 열고 충남 지역에 분포된 서산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 등 가야산 권역 백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섰던 김선임 보원사 사무장은 "백제시대 가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지역은 활발한 해상교역의 경제 중심지며, 수준 높은 서민 문화가 발달한 만큼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임경호 충남도 문화재과 학예연구사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통사상 등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연관된 사례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불교 문화재와 유적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진흥의 목적이 크다.

박종수 원주시 문화재담당은 "원주 지역 문화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다.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손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잠정 등재를 추진하고, 이후 국제세미나 등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작품 공모

조계종, 9월 5일까지 방송 · 신문 · 뉴미디어 등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을 오는 9월 5일까지 공모한다.

방송(TV ·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불교언론인상, 특별상 등 5개 부문에 대한 작품을 접수한다. 불교언론인상은 공로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상은 방송 · 신문 · 영화 · 광고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시상한다.

출품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시상하는 대상 1작품에는 상패와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불교언론인상(1인 500만원)과 특별상(2작품 각 300만원)을 제외한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올해는 상금 규모가 지난해 대비 1100만원 확대된 5300만원으로 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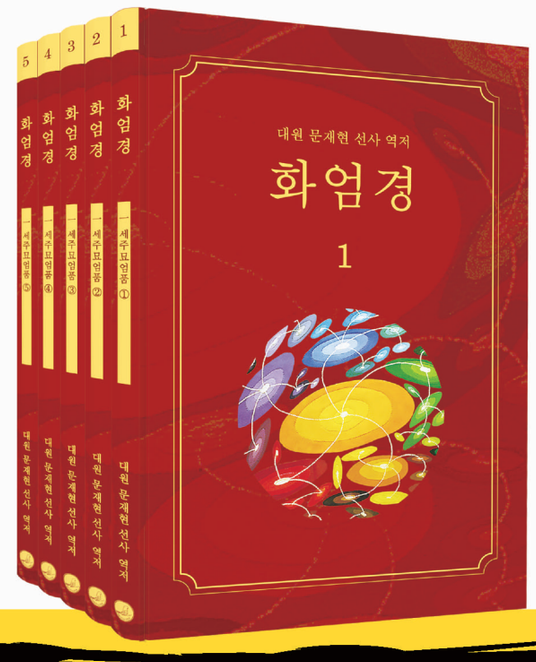
응모는 직접응모와 추천응모로 나뉘며 작품개요서 및 추천서 1부를 공통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출품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며, 해당 작품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10월 중순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상식은 11월 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릴 예정이다. (02)2011-1770 윤호섭 기자

8/12(금)부터 8/15(일)까지 3박 4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맥선원 여름 수련회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법문시간 : 대원 선사님의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통쾌한 선법문을 만나십시오.
문답시간 : 선사님께 직접 자신의 수행을 세밀히 점검,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선시간 : 선사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참선지도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선정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 소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 **교 재**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참가비** 10만원
신청문의 성불사 010-6431-8805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책 1,2,3,4,5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차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전자책 1~5권 무료공개